

## ◆ 북미

- TowerGroup, 미국 퇴직자산시장 확대 전망
- 2007년 미국 은행지주회사 보험수익 소폭 증가
- 미국 재보험산업, 2007년에도 성장세 지속

## ◆ 유럽

- 오스트리아 비엔나보험그룹, 우크라이나 성공적으로 진출
- 영국, 보험회사 의료관광객들의 원정치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 ◆ 일본

- 푸르덴셜생명, 진단서 발급 비용 대신 부담 서비스 제공
- 메뉴라이프, 방카슈랑스 전용 투자형 종신개호연금보험 개발

## ◆ 중국

- 중국 사회보험기금 직원 횡령죄로 징역 10년
- 씨티은행 보험부문, 중국 내 방카슈랑스 업무 강화
- 핑안보험, 중국 보험업계 최초로 의료시장 진출

##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 TowerGroup, 미국 퇴직자산시장 확대 전망

- 미국 리서치 회사인 TowerGroup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퇴직자산 시장에서 보험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간소화하고 판매 프로세스 및 적합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TowerGroup은 2025년 미국의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며, 2007년 미국의 퇴직자산 규모는 18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 TowerGroup은 보험사들이 연금상품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의 퇴직자들에게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보험사들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연금 상품과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고객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TowerGroup은 보고서에서 최근 규제상의 변화를 지적하며 퇴직자산 시장에서 보험사들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금융상품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인해 부적절한 상품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부적절한 투자와 불공정 판매행위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들을 만들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상품의 복잡성을 줄이는 등 연금 판매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TowerGroup은 구체적으로 보험사들이 고객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연금상품의 보상구조를 변경해야하며, 판매행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감시하고 정보제공의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함.

(Business Wire, 4/17)

## □ 2007년 미국 은행지주회사 보험수익 소폭 증가

- 2007년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의 보험관련 총수익은 2006년 435억 달러에 비해 소폭 증가한 437억 달러를 기록함.
  - 이러한 보험수익(insurance revenue)의 증가는 Citigroup, Wells Fargo, HSBC North America Holdings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American Bankers Insurance Association(ABIA)와 Michael White Associates(MWA)는 밝힘.
  - MWA의 관계자는 상위 50개 은행지주사의 보험수익 비중 (보험수익/비이자 수익)은 평균 13.4%를 나타냈으며 많은 은행지주회사에서 보험수익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2007년 637개의 은행지주회사들이 보험관련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들의 보험중개 수수료는 2006년 121억 3천만 달러에서 1%증가한 1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함.
  - ABIA의 관계자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중개 수수료는 연평균 19.1%씩 성장하였으나 2007년에는 손해보험 보험료 인하와 관련 규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고 설명함.
  - 그는 또한 보험중개 사업은 건실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은행의 보험수익 성장률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표> 미국 은행지주회사 보험 수익 순위

2007년 순위	2006년 순위	총 보험수익 (단위 : 천 달러)	은행지주회사명	본사위치
1	1	3,534,000	Citigroup Inc.	New York
2	2	1,530,000	Wells Fargo & Company	California
3	4	866,583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Illinois
4	5	853,779	BB&T Corporation	North Carolina
5	7	630,485	Bank of America Corporation	North Carolina

(Insurance Journal, 4/15)

## □ 미국 재보험산업, 2007년에도 성장세 지속

- 2007년 미국 재보험산업은 낮은 대재해 손실과 과거의 고 보험료 등으로 인해 성장을 지속했으나 보험료 인하 추세와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재보험 협회(Re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가 20개 재보험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재보험사들의 합산비율\*은 2006년 94.9%에 비해 소폭 개선된 94.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순보험료는 22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6년에 비해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계약자 잉여금(policyholder surplus)은 2006년에 비해 1.8% 증가한 75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함.
- \* 합산비율이란 보험경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임.
- 2008년에는 대재해의 발생여부가 미국 재보험산업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신용평가기관 Fitch의 James Auden에 따르면 2008년 대재해 발생빈도가 평균 수준으로만 상승하더라도 보험료 인하와 맞물려 재보험사들의 합산비율을 99%~102%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보험료의 하락 추세는 2008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재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8년 들어 재계약한 건들의 대부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현재 시장의 주도권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언급함.
  - 투자회사 Morgan Keegan & Co 의 John Gwynn은 산업 내 잉여자본이 상당히 축적된 이후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도 같은 상황이며 1996년~2001년 때와 같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힘.

(Business Insurance, 4/14)

##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보험회사, 우크라이나에 성공적으로 진출

- 2007년 비엔나보험회사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우크라이나 보험시장에 진출한 것을 꼽을 수 있다고 전함.
  - CEO Günter Geyer에 따르면, 비엔나보험그룹은 2004년 말에 우크라이나 보험시장에 참여하였으며, 오늘날 본 그룹은 Jupiter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Kniazha와 Globus 두 손해보험회사의 대표기업이 되기도 함.
  - 비엔나보험그룹은 자동차책임보험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0%를 웃돌아 2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해서는 약 7%의 시장 점유율로 3위를 기록,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한 비엔나보험그룹은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비엔나보험회사의 보험밀도\*(density)는 생명보험부문이 USD 1.90를 기록하였으며, 일반손해보험부문이 USD 57.60로 나타남.
  - 오스트리아의 생명보험 밀도는 약 600배 수준에 달하는 USD 1,104.60을 기록하였으며, 일반손해보험도 20배 이상 높은 USD 1,292.10로 높은 수치를 보임.

\* 보험밀도는 보험침투도(GDP대비 보험료)와 같이 보험산업의 발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1인당 보험료를 의미하며, 본 수치는 2006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비엔나보험그룹은 비엔나에 본사를 둔 CEE(Central and Eastern Europe) 지역의 선두 보험그룹으로 오스트리아의 가계보험 외에도 불가리아,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의 지점을 가지고 있음.

*(finchannel & Vienna Insurance Group News, 4/15)*

## □ 영국, 보험회사 의료관광객들의 원정치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메디컬-투어리즘(의료관광)'이 급증하고 있음.
  - 의료관광산업(health tourism industry)은 해마다 30% 가까이 성장하고 있으며, 가슴이식수술, 심장수술, 고관절대치술 개인치료 비용은 영국보다 해외에서 받는 것이 약 20-5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치아시술, 미용수술, 가벼운 외과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으나, 여행자보험은 그러한 해외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경고함.
  
- 최근 주요 이슈로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를 찾는 사람의 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26,000 브리튼인(고대 영국 남부에 살던 켈트족)은 올해에도 의료행위를 위해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음.
  - 인도는 현재 최고의 의료관광의 행선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헝가리, 터키,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우체국과 Saga사는 여행 중 분실된 수하물이나 연기나 취소된 항공편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의료시술과 관련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질병과 관련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전에 의료 상황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여행자보험은 무효화 됨.
  -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치료를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여행자보험 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함.

(thisismoney, 4/16)

##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 푸르덴셜생명, 진단서 발급 비용 대신 부담 서비스 제공

- 일본에서 영업 중인 푸르덴셜 생명보험은 지난 17일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회사가 진단서 발급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발표함.
  - 푸르덴셜은 진단서 발급 비용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푸르덴셜은 입원 급부금의 지급에 필요한 진단서 및 입원증명서의 발급비용을 위해 1회 5,250엔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사망 증명서, 장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위해 1회 1만 500엔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올해 1월 1일 이후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할 계획임.
  
-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은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이 2007년 6월 생보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음.
  - 이를 시작으로 오릭스생명보험이 동년 8월, 외국계의 지브럴타 생명보험이 2008년 1월부터 시작했으며 이후, 니혼(日本)생명보험, 터이요오(太陽)생명보험, 아사히(朝日)생명보험 등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의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계약자의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험금 부당 미지급 또는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FujiSankei Busines I, 4/18)

## □ 메뉴라이프, 방카슈랑스 전용 투자형 종신개호연금보험 개발

- 일본에서 영업 중인 메뉴라이프생명보험은 은행창구 판매채널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변액연금의 자산형성 기능을 기초로 최근 인기 있는 개호보장 요구에 부합하는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인 투자형 종신개호연금보험 「메뉴 프라임케어」를 개발하고 도쿄스타은행에서 금년 4월 19일부터 판매를 개시함.
  - 「메뉴 프라임케어」는 현재, 은행에서 대면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戰後 세대 및 고령자 고객의 노후자금, 건강·개호 서비스 요구에 부합하며,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은행에서도 취급하기 쉬운 상품을 목표로 개발되었음.
- 투자형 종신개호연금보험 「메뉴 프라임케어」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가. 가입하기 쉽고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
    - ① 간단하고 쉬운 고지(직업 고지만)로 보험계약 신청 가능
    - ② 피보험자가 처음으로 공적개호보험 제도에서 ‘요양간호 1’ 이상을 인정 받았을 경우 개호 급부금 지급
  - 나. 분산투자과 일부 해약 시 수수료 면제
    - ①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의 자산에 분산 투자된 특별계정(주식의 기본 자산배분 50%)으로 운용
    - ② 계약자로부터의 청약에 의해 계약일 1년 후부터 1보험기간에 1회, 기본 보험금액을 상회하는 적립금을 한도로서 기본 보험금의 감액 없이 일부해약 가능
  - 다. 최저 보장
    - ①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개호 급부금 및 사망 급부금 등 기본 보험금액의 100%를 최저 보장

(Kyodo News, 4/16)

##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 중국 사회보험기금 직원 횡령죄로 징역 10년

- 얼마 전 베이징(北京) 동청취(東城區) 사회보험기금 직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동청취 인민법원에서 열렸음.
  - 베이징(北京) 동청취(東城區) 사회보험관리센터 지급부 직원 자오강(趙剛)은 지난 2006년 11월 내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횡령죄로 구속되었으며, 사회보험기금 44만 위안을 횡령한 죄로 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고 자신이 횡령한 44만 위안 전액을 추징당했음.
  
- 자오강 33세, 베이징 출생으로 전문대 졸업하였으며, 1999년 3월부터 동청취 사회보험기금 관리센터에서 근무한 그는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연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항상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곤 했다고 함.
  - 그러던 중 친구인 팡씨로부터 자기회사의 기금계좌 관리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연금기금에서 44만 위안을 임의 출금하여 팡씨회사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나중에 20만 위안을 찾아 노트북, 핸드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
  
- 자오강은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회사의 종업원 7명에 대해 가입자 사망, 국외전출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인출했으나, 해당 회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보험금 수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화시보, 4/14)

## □ 씨티은행 보험부문, 중국 내 방카슈랑스 업무 강화

- 씨티은행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실상 은행과의 관계가 유명무실해진 씨티은행 보험부문이지만, 은행으로부터의 분리가 오히려 보험회사와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함.
  - 지난 14일 씨티은행 보험부문은 독자생존을 목표로 중국 내 방카슈랑스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내 놓았으며, 씨티은행 보험부문의 방카슈랑스 전략은 자산관리(Citi Wealth Management), 어린이 영재 성장계획(Citi Junior Plan), 재무안전방안(Citi Protection Solution), 퇴직보장방안(Citi Retirement Solution)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 현재 씨티은행 보험부문의 상품구조로 볼 때,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등은 이미 판매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추진 중인 상품이 '퇴직보장방안'으로 이를 위해 연금보험을 금년 2/4분기 주력상품으로 판매한다는 방침임.
  
- 씨티은행 보험부문이 중국 국내은행과 다른 점은 협력 상대 보험회사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며, 현재 씨티은행과 협력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렌타이메트로생명(聯泰大都會人壽), 중메이메트로생명(中美大都會人壽), 중더안렌생명(中德安聯人壽), 신청생명(信誠人壽) 등 4개에 불과, 이들은 모두 미국과 유럽계 대형 보험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 씨티은행이 보유한 고객은 대부분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High-end 고객군이며, 씨티은행 보험부문은 이들에게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기도 함.

(상해증권보, 4/15)

## □ 핑안보험, 중국 보험업계 최초로 의료시장 진출

- 중국 손해보험 2위 사인 핑안보험(平安保險)은 지난 4월 17일 중국 최대 건강검진관리그룹인 '쯔밍(慈銘)건강검진관리그룹'과 투자협정 조인식을 가졌음.
  - 쯔밍(慈銘)건강검진관리그룹 총재 한샤오홍(韓小紅)은 "보험과 건강검진 업계는 함께 협력하여 일반인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이번 투자협정 조인식은 중국 국내 건강검진 관리업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최대 수익자는 일반 소비자가 될 것이다."는 말로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였음.
  
- 중국에서 보험과 의료분야가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와 같은 협력모델은 사회의료보험이 주(主)가 되고 상업건강보험이 부(副)가 되는 '제 3자 보험료 납부 건강검진관리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배분으로 의료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정부, 보험회사, 의료기구, 보험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핑안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검진 산업에 대한 투자는 핑안보험 미래 전략의 하나로써, 금번 투자 의사결정 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향후 건강검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경제시보, 4/17)

##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4.4(금)	08.4.11(금)	08.4.18(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14	4.94	4.98	0.04
	美 10년국채	4.03	3.48	3.47	3.74	0.27
	英 10년국채	4.51	4.45	4.61	4.71	0.10
	日 10년국채	1.51	1.34	1.38	1.40	0.02
주가	韓 KOSPI	1,897.13	1,766.49	1,779.71	1,771.90	-0.44%
	韓 KOSDAQ	704.23	648.49	651.87	643.75	-1.25%
	美 DJIA	13,264.82	12,609.42	12,325.42	12,849.36	4.25%
	美 Nasdaq	2,652.28	2,370.98	2,290.24	2,402.97	4.92%
	英 FTSE	6,456.90	5,947.10	5,895.50	6,056.50	2.73%
	獨 DAX	8,067.32	6,763.39	6,603.57	6,843.08	3.63%
	佛 CAC40	5,614.08	4,900.88	4,797.93	4,961.69	3.41%
	日 Nikkei225	15,307.78	13,293.22	13,323.73	13,476.45	1.15%
	中 상해종합	5,261.56	3,446.24*	3,492.89	3,094.67	-11.40%
	대만 가권	8,506.28	8,596.34	8,909.58	9,074.34	1.85%
홍콩항셍	27,812.65	24,264.63*	24,667.79	24,197.78	-1.91%	
환율	원/달러	938.20	974.10	975.40	1,000.80	25.40
	원/100엔	833.33	951.67	958.30	965.48	7.18
	엔/달러	112.58	101.68	101.19	104.42	3.23
	달러/유로	1.4722	1.5732	1.5818	1.5727	-0.0091
	위안/달러	7.3041	7.0175	6.9920	6.9842	-0.0078

주 : \*는 4/3 기준임.